

“무안, 시 승격으로 서남권 균형발전 선도”

무안군이 시 승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무안시 전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무안시 전환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민관 합동 토론회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행준 초당대학교 교수는 “전남을 볼 때 수도권 지역과의 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여수, 순천, 광양시가 있는 동부권에 비해 목포, 나주시만 있는 서부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 서부권 균형발전 벨트화를 위한 새로운 특화도시가 필요하다”면서 “전남도청 소재지이며 공항과 3개 대학이 소재한 무안군을 무안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시 전환기준에 대한 완화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노력과 ‘군’과 ‘시’의 중

군, 무안시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

‘특례자치시’ 새 지자체 모형 개발

공항 활성화 등 자구적 노력 필요

간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모형개발(특례자치시), KTX와 공항을 활용한 기업유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공항을 활용한 중국자본 유치 등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안신문 박금남 대표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박일상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장, 임윤택 무안군의회의원, 임지수 삼향읍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무안시 전환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무안군은 최근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무안시 전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무안군 제공

임윤택 의원은 “9만 군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군과 같은 처지에 있는 충남도청소재지인 홍성군과 연대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전환을 추진하고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MRO,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K푸드 융복합사업 등을 성공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수 삼향읍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광주

시에서 남약으로 이사와 10년 이상 거주중이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전남도청 소재지 주민으로 자부심도 높고 제2의 고향인 무안군에 애착이 남다르다”면서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일상 무안국제공항활성화 위원장은 “국내 15개 공항 중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과 무안공항이며 2025년 KTX와 활주로가 연장되면 무안국제공항은 명실공히 서남권거점 공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사제로 당초 김포시와 김해시가 ‘읍’이었지만 각각 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시로 승격됐다”면서 “무안국제공항이 ‘시 전환’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시 전환은 무안 백년대계를 이끄는 원동력이자 서남권 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시 전환 추진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나주 ‘365일 자녀 돌봄’ 보육실 개원

도내 최초...내달 4일 운영

생후 6개월부터 미취학아동

나주시가 도내 지자체 최초로 365일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실을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365일 시간제 보육사업’ 위탁 보육시설로 선정된 빛가람동 키타브레인 어린이집(원장 김소연)에서 시간제 보육실 개원식을 가졌다.

365일 시간제 보육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이다.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야근, 병원 진료·입원 등과 같은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중무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 부모(보호자)가 미리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이용 대상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 또는 직장 등을 둔 부모의 생후 6개월에서부터 미취학 아동까지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자녀를 돌봐준다. 이용료는 시간당 3,000원으로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에 다녀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 방법과 신청 문의 등은 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 학부모는 “주말이면 늘 광주에 계신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곤 해서 마음이 쓰였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연중 언제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실이 생겨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개원식에 참석한 소감을 전했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생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직면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충권 기자



목포시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응급의료지원본부를 설치했다.

/목포시 제공

목포, 전국체전 대비 응급의료지원 체계 구축

응급의료지원본부 설치 업무 총괄

주 경기장 비롯 의료진 상시 배치

목포시가 오는 10월 13일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응급의료지원 체계 구축했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보건소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하는 응급의료지원본부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기간 동안 의료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양대체전 기간 동안 목포시는 주 경기장 내에 설치된 의무실에 의사, 간호사, 구급차를 상시 배치한다. 축구·농구 등 위험종목이 치러지는 각 경기장에는 응급상황을 대비해 의사(80명)

포함 간호사(80명), 구급차(응급구조사 포함) 등 240명의 의료진이, 일반종목 경기장에도 공공인력 및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배치돼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에 나선다.

의료진(의사)은 목포예향병원 7회, 부부요양병원 5회, 한국병원 3회, 기독병원 3회, 시의료원 3회, 다윗365 내과의원 3회, 굿모닝비뇨기과 의원 3회, 세안종합병원 2회, 우림심경외과의원 2회, 우리고운파과외의원 1회 지원한다. 또 관내 병원의 협조로 간호사 의료진도 확보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의료지원에 앞장서 주신 목포시의사회협회와 의사, 간호사 등 모든 병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진도, 간 질환 예방 C형 간염 항체 전수 검사

진도군이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항체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25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C형 간염 항체 유무를 확인하는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한 1차 진단에 이어 그중 양성자 확진 판정을 위한 HCV RNA 양성자 유전형 검사이며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C형 간염은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무증상에 백신도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병이다. 또 2년전 치료제가 개발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됐지만 비싼 치료비 때문에 치료율도 현재

히 떨어진다.

전문 검사기관의 최종 검사 결과 C형 간염 확진으로 판명된 3명에 대해서는 목포한국병원과 연계해 C형 간염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추후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발생하는 치료비용은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C형 간염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인식도가 낮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환자를 발굴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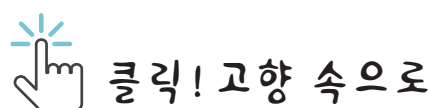
/진도=박병호 기자

함평 국향대전 입장권 할인

함평군은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리는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 입장권을 10% 할인해 사전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전 입장권은 인터넷 티켓링크에 접속 후 메인화면 검색창에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검색하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예매가 가능하며 인터넷 판매기간은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다. 함평축제관광재단에 직접 방문해 구매하면 인터넷과 같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나 인터넷 판매 기간과 달리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판매한다.

/함평=윤예중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군의회,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

무안군의회회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방문해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의회는 에덴노인 전문요양원과 미소드림 노인요양원, 용학 노인 요양원 등을 방문해 화장지, 세제 등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노고를 격려했다.

김경현 의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이웃 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



효도회 강진지역회, 김자반 세트 기탁

강진군은 25일 “한국효도회 강진지역회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해달라며 김자반 세트 10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자반 세트는 11개 읍·면 독거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마삼섭 회장은 “작은 기탁품이지만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저소득 어

르신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한국효도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국효도회 강진지역회 활동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함평, 양파 모종 공정육묘 연시회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남종우 농가(손불면)에서 비가림 하우스 양파 기계 정식용 모종 공정육묘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파 재배농가 30여명이 참석해 공정육묘 과정을 지켜봤다. 공정 육묘는 육묘의 생력과 및 안전화를 목적으로 하며 파종, 관수, 시비 등 재배 육묘작업을 체계화, 장치

화한 묘 생산 시설에서 질이 균일하고 규격화된 묘를 생산하는 것이다.

남종우 회장은 “집중호우에 영향받지 않고 우량 모종을 생산할 수 있으며 자동관수 시설을 이용하면 노동력도 거의 들지 않는다”며 “앞으로 양파 기계 정식용 모종 육묘는 비가림 하우스에서 실시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